

계간 **미주문화**

2008
봄호



미주한국문화인협회

고원 선생님 영전에

회장 김동찬

미주 문단의 큰 스승이셨던 고원 선생님이 하늘나라로 떠나셨습니다.

50여 년 전에 선생님이 내셨던 첫 번째 시집의 제목처럼 “시간표 없는 정거장”에서, 만나는 기쁨을 함께 나누었고 또 헤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에 우리의 갈 길을 늘 제시해 주시던 위대한 스승을 잃은 상실감과 비통함이 사무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글마루에서 최근까지 선생님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외람되게도 고원 선생님의 제자라고 감히 자칭하고 있습니다.

글마루에 처음 나갔을 때 배운 교재가 『채근담』이었습니다. 창작 이론이 아닌 중국 격언집을 가르치시는 것이 의아하게 느껴졌습니다만 곧 그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한 개의 Sentence는



『열린시학』 편집인, 글마루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 저서로는 산문집 『심심한 당신에게』, 시조시집 『신문 읽어주는 예수』, 시집 『봄날의 텃밭』이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ktc>

한 개의 아이디어를 가져야 하고, 한 개의 Paragraph는 한 개의 Topic을 가져야 한다'는 등의 창작 기초 이론을 자상하게 지도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글을 쓰기 위한 마음가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먼저 해야 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입에 발린 미사여구가 아니라 살아 있는 글을 쓸 수 있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까이서 뵈는 선생님은 한국 문학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일본문학, 나아가서는 각 나라의 신화에 이르기까지 믿어지지 않을 만큼 모르시는 것이 없는 박학다식한 분이었습니다. 그 학문적 깊이나 넓이, 문학적 경륜으로 보자면 저는 감히 선생님의 제자라고 자칭하는 것이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격식보다는 자유스러운 정신과 겸손함이 몸에 배인 선생님께서는 너그러운 웃음과 유머로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가르침을 주시곤 하셨습니다. 그 한 예로 선생님은 우리 제자들에게도 꼭 무슨 선생이라고 부르시곤 하셨습니다. 지금도 저에게 '김 선생, 먼저 갈 게 천천히 오세요' 하고 웃으실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인품으로, 말씀으로, 글로, 강연으로 고원 선생님의 가르침

을 직접, 간접으로 받지 않은 분은 미주의 한인들 중에서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 욕심 같아서는 선생님을 우리 곁에 계속 계시게 해서 어려울 때나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수시로 가르침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가 순응해야 할 천국의 섭리가 있어서 북받치는 슬픔을 누르고 선생님을 배웅합니다.

비록 선생님은 떠나셨지만, 선생님이 주신 많은 가르침과 아름다운 문학작품은 우리들 가슴에 북극성처럼 살아 영원히 빛날 것입니다. 선생님의 유지를 받들어 권력이나 세상의 부패한 정신에 굴하지 않는 문학작품을 창작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감동을 나누는 사람이 먼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고원 시인 추모 특집



미주 한인 문단의 큰 어른이신 故 고원 박사님께서 지난 2008년 1월 20일 오전 7시 10분에 향년 82세로 소천하셨습니다. 입관예배는 2008년 1월 23일(수) 6:30pm 세계비전교회에서, 장례예배는 2008년 1월 24일(목) 10:00 am 같은 장소에서, 하관예배는 2008년 1월 24일(목) 12:00 정오에 장지인 Hollywood Forest lawn Memorial Park에서 마주한인문인장, 세계비전교회장으로 마쳤다.

폭우가 계속되는 가운데 진행된 장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식의 순서에 참여해 주시고, 조화를 보내 주시고, 이메일로, 우편으로 조의를 표해 주시는 등 문인을 비롯한 많은 동포들의 애도 속에서 모든 장례절차가 마무리 되어졌다.

고원 시인을 추모하는 이 특집에는 송상옥 소설가, 곽상희 시인, 배희경 수필가, 장태숙 시인, 조옥동 시인이 참여했다.

고원(高遠) 약력

■ 본명

고성원(高性遠)

1925년 12월 8일 충북 영동군 학산면 박계리 출생.

1964년 1월 도미.

■ 저서

습작시집 『새움』(1946), 3인 시집 『시간표 없는 정거장』(장호, 이면
영과 1952), 『새소리』(박남수, 마종기와 1992)으로부터 시집 『이울의 향
변』(1954), 『태양의 연가』(1956), 『눈으로 약속한 시간에』(1960), 『오
늘은 멀고』(1963), 『속삭이는 불의 꽃』(1964), 『미루나무』(1976), 『북
소리에 타는 별』(1979), 『물너울』(1985), 『나그네 젖은 눈』(1990), 『다
시 만날 때』(1993), 『정(情)』(1994), 『무화과나무의 고백』(1999), 『춤추
는 노을』(2003), 시조집 『새벽별』(2001), 산문집 『갈매기』(1979), 『노
피곰 머리곰』(1988), 『갈밭에 떨어진 시간의 조각들』(2001), 영시집
The Turn of Zero(1974), With Birds of Paradise(1984), Some
Other Time(1990), 번역시집 Contemporary Korean
Poetry(1970), South Korean Poets Resistance(1980), Voices in
Diversity: Poets from Postwar Korea (2001), 『영미 여류시인선』
(1959), D.H. 로렌스 『사랑의 시집』(1960), 학술저서 Buddhist
Elements in Dada: A Comparison of Takahashi Shinkichi,
Tristan Tzara and Their Fellow Poets(1977) 등. 2006년에 『고원
문학전집』 5권으로 이를 함께 엮음.

■ 학력

해화전문을 거쳐 동국대학 전문부 문학과 졸업(1948), 유네스코 장학생으로 1년간 영국 유학—케임브리지 대학과 옥스퍼드 대학의 강습회 과정을 마친 후 런던대학의 퀸메리 대학 영문학과 수학, 필리핀의 실리만 대학 문예창작강습회 수료, 아이오와 대학 대학원 문예창작과 졸업(MFA), 뉴욕대학(NYU) 대학원 비교문학과 졸업, 비교문학박사.

■ 교수직

한국에서 수도여사대, 건국대, 미국에서 Booklyn College(City University of New York), NJIT, Cal State University(L.A., Northridge), UC Riverside, 은퇴 후 1992년 이래 University of La Verne 재직. L.A.에 글마루 문학원 설립하여 20여 년을 문학과 문예창작 지도.

■ 문학상

Kansas City Star Poetry Award, 미주한국문인협회의 미주문학상, 한국문인협회의 문학 공로패와 해외한국문학상 등 다수.

■ 문학단체

국제 PEN 한국본부 사무국장, 국제 PEN 미국본부 이사, 미주문학회장 고문, 세계한민족작가연합 회장 등 역임

■ 문예지

1988년 이래 문예지 『문학세계』/The Literary Realm 발행/편집인. 『미래문학』(대전) 고문, 『미주시인』 상임고문.

고원 시인의 유작시와 시조

1. 시

다시 만난 페튜니아*

서늘한 바람을 타고
홀쩍 돌아왔다.

초록 짙은 몸의 생기로
새빨간 꽃잎이
한결 더 뜨겁다.

햇빛을 빨아들이는
페튜니아의 가슴에
이른 봄 바다의 물결이 일어
해를 굴린다.
해를 업고 빛이 돈다.

다시 만나 새로 솟는 불길.
애타던 달빛도 잔별도
맘 놓고 탄다.

* 꽃이름 Petunia (2007)

분홍 소리*

소리 하나 새로 태어나더니
누군가 태어난다고 알린다.
분홍 소리.
연분홍 진분홍이 섞였다.

귀한 소리가 퍼지고 번진다.
초록색 숲에다 빛을 뿌리는
숨소리 따듯한 하루하루.

이름이 '크리스마스
선인장' 이 아니면 어떤가.
밤과 낮 하늘의 소식도
새로운 빛깔로 소리를 낸다.

온 누리가 둘러싼 내 맘도
분홍 소리에 물들어간다.

* 꽃이름 Christmas Cactus (2007년 11월)

** 편집자 주 ; 근년 들어 선생님께서는 정원에 피는 꽃을 보고 시를 많이 지으셨다.

회복실

창너머 같은 나무
같은 바람이 흔들고

꼭 막힌 벽속은
흐물거리며 돌아다니는
소리.

벽속에
회복이 있었다.

(2007년 12월)

*** 편집자 주 : 이 시는 병원 ICU에서 쓰신 선생님 생애 마지막 작품이다.

2. 시조

타향에 열린 박

이쁜 꽃이 핀 자리
고향이 돌아왔네.

자라난 초가 토담
지붕이 그대로네.

바가지
만들어 놓으면
고향도 새지 않겠지.

(2007)

고원 선생을 기림

송상옥

만유를 주재하시는 이의 높고 거룩한 뜻을 헤아릴 길이 없으나, 그를 부르심이 너무 갑작스러워 아직도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선생은 외세에 짓밟혀 허덕거리던 나라, 한국에 태어나 한 자연인으로서, 그야말로 소용돌이의 현대사를 온몸으로 아프게 사셨습니다.

20대 청년기에 닥친 한국 전쟁의 참화 속에서 벌써 남보다 몇 갑절의 고초를 감내하셨습니다.

그후 선생은 남 먼저 넓은 세계의 문을 두드리 학문의 길로 나아가고, 이 땅 미국에 이주해 오시기에 이르러, 더욱 큰 뜻을 펼치셨습니다.



일본 富山縣 출생. 1959년 《동아일보》 신춘문에 단편소설 입상. 《사상계》 추천. 현대문학상, 서라벌문학상, 미주문학상, 한국소설문학상 수상. 미주한국문인협회 결성, 회장 역임, 현재 고문. 작품으로는 『환상살인』 등 여러 권의 장편소설과 10여 편의 중단편소설집, 콩트집이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songsangok>

다.

한편 문학인으로서의 선생은 다른 이들이 뒤따르기 어려운 전인(全人)에 가까운 생애를 훌륭히 사셨습니다.

선생은 운문과 산문 두 부문에서 통달하셨으며, 일찍이 영문시 창작과 번역에도 일가를 이루심은 물론, 후진 지도, 문학지 간행, 신인 배출 등 창작 외의 중요한 문학 활동도 활발히 하셨습니다.

문학인으로서 이러한 전인적 생애는 전체 한국 문단사를 통틀어서도 아주 드문 예입니다. 더욱이 선생은 이처럼 큰 업적을 어느 한 때가 아니라, 삶의 마지막까지 쉼 없이, 또한 모자람이 없이 쌓으셨습니다.

저는 선생의 많은 개인적인 면모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재작년 4월 같은 연배이신 김남조 시인이 로스앤젤레스를 방문했을 때의 일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행사장에서 선생은 김 시인을 향해 활짝 웃으시며 ‘우리 앞으로 20년만 더 살자’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빨리 가시다니요…… 너무나 안타깝고 슬프고 애석합니다.

석달 전인 지난 가을, 미주문인협회의 일로 댁에서 뵈었을 때, 몸이 불편하신 기색이 역력해 “김남조 시인과 하신 약속을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어서 쾌차 하셔야죠” — 저의 이 말에 빙긋이 웃으시며 고개를 끄덕이시던 선생의 모습이 새삼 큰 아픔으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지난 세월, 결코 짧지 않은 시간들을, 참으로 열심히 할 일을 다하신 이. 한 인간으로서, 문학인으로서 큰 발자취를 남기시고, 모두가 본받아야 할 삶을 가득 사신 선생이시여, 이제 평화와 안식의 영원한 나라에서 편히 쉬소서.

2008년 1월 24일 후학 엮드려 씁니다.

먼저 와서 꿀을 키우는 벌처럼

곽상희

이른 아침 겨울햇살 바튼
자작 나뭇가지에 빠꼭새 한 마리
앉아 울고 있다
어젯밤 어느 누가 삶의 거동을 챙겨
하늘 길로 갔나
그가 떠난 자리에는
푸른 물감의 웅달샘 파여 있다
그의 고통과 방향의 그리움이
무슨 말로 또 한 권의 책을 이루랴
그의 남은 말은
아직 학산면 박계리* 앞바다와
대양의 산호초 수풀에 묻혀 있을 것이다
그가 지나면서 이리저리 뿌려놓은
사상과 짙은 감성의 부서진 돌들과 물방울이



『현대문학』으로 등단. 뉴욕 현대 예술 아카데미 등에서 다년간 문학강의. 제1회 박남수 시인 대상. 시집 5권, 영시집 1권, 수필집 3권, 소설집 1권 등 다수의 저서가 있다.

세상의 잡초 밭에 얹혀 있다
사는 것으로 한 줄 한 줄 쌓아올린
오해와 사랑
땅을 내려오는 숫자 하나에도
삶의 질곡은 있는 법
그러나 내일의 희망이 먼저 와
꽃을 키우는 벌처럼 기다리는
삶은 아름답지 않나
꿈꾸는 자들은 기다리며
몸으로 가슴으로 숫자와 색채의
삶을 여전히 살아갈 것이다

그대 뒤돌아 웃음 핀
석등 불빛 하나 부시다.

권위주의를 허문 제자 사랑

배희경

글마루에 발을 들여놓았던 십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족을 빼곤 누구를 그렇게 자주 만날 수 있었겠는가. 한 달에 네 번, 후엔 두 번이 되었지만, 이것은 보통 인연이 아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다니며 죽을 힘을 다해 공부했을까.

나는 지금도 집 아래에 지나가는 학생들을 보면, 이젠 학교에 안 가도 되는구나 하는 안도감을 가진다. 유치원 때부터 학교를 싫어했던 나는 종일이라도 엄마 옆에서 맴돌며 놀고 싶었다. 초등학교에 들어가선 중학교 입시공부에 시달렸고, 중학교에선 대학에 가야하는 강박관념이 있었다. 대학교를 수료하고 취직하고 있을 때 6.25가 터졌고, 전쟁 중에 시집도 갔다. 그때까지 내가 한 공부는 해야 한다는



함남 함홍 출생. 중앙대학 학부 문과 2년 수료. 『문학세계』, 『한글문학』 수필 부문 당선. 글마루 동인,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원.
<http://myhome.mijumunhak.com/paehk>

의무감에서였다.

그런 중 자식들도 다 성장했다.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글 쓰는 일이다. 그런 동기로 인해 글마루 교실에 적을 두게 되었고 교수님도 만나게 되었다. 내 소망이 있는 교실에서 내가 원하는 길로 이끌어 주시는 선생님께서부터 나는 열심히 배우며 무한한 기쁨을 얻었다.

내가 초반에 쓴 글 중에 「이름을 찾은 기쁨」이라는 수필이 있다. 이 글은 일제시대 일본이름으로 시작해서 누구의 부인, 누구의 엄마, 누구의 할머니로 변천하는 한국 여자의 운명 같은 과정을 쓴 글이었다. 일터라는 무대에서 불리우던 광대 같은 미국이름을 버리고, 글마루 지원원서에 부모가 달아준 내 이름을 적었을 때의 감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몇 세기 만에 찾은 이름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어 서 있는 나를 보았던 감격에서 내 글마루의 역사는 시작되었다.

「이름을 찾은 기쁨」이 교수님이 발간하는 문학세계에 추천작이 되었을 때, 나는 정말 꿈을 꾸고 있는 기분이었다. 내가 문단에 발을 들여놓기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었던가를 그때서야 깨달았다. 교수님은 학생의 문단 입문을 학구애에 중점을 두었다. 그리고 능력보다도 글에 대한 갈망과 의욕을 더 중요시 하셨다. 내게도 마찬가지였다. 교수님께서는 내가 갈고 닦아야 하는 연마의 광장을 훌렁 넘게 해 주신 것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나 같은 사람이 어찌 문단의 켓전이나 기웃거리 보았겠는가.

빨리 발자국을 떼어놓게 해 줌으로써 막막하게 글쓰는 이의 앞길을 터 주신 분! 낙타가 바늘 구멍으로 들어가야 하는 규율을 깨셨다. 우리의 노력과 의지만 보이면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신 것이다. 무슨 경로로 등단했는가 하는 것이 문인의 긍지라면, 교수님은 자신이 간행하는 책의 수준보다는 제자들에게 힘을 얹어주는 것을 우선

으로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이 제자를 양성하는 제자 포양의 기본자세였다. 당신보다 제자를 위하는 마음, 권위주의를 허무는 혁명을 하신 분이다. 이 글을 저 세상에서 보신다면 너 무슨 소리 하느냐고 역정을 내실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한참 전 일이다. 시상식이 있으니 꼭 참석하라고 교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서 좀 의아했다. 이름도 생소하고 상 타는 분도 잘 알지 못하는 분이었지만 축하 분위기는 어느 시상식에 못지않았다. 모두 이런저런 상을 만들어 문인들의 사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행사였다. 누구의 발상으로 치뤄진 상인지는 모르지만, 교수님은 제자를 추어세우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셨다. 그날도 축하를 해주셨지만, 모든 행사에 참석하시며 일일이 축하하시는 일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크고 작은 행사에 축하하신 것을 치면 54주로 40년(실제로는 50년이지만)만 잡아도 2000번이 넘는다는 계산이 나온다.

교수님은 1998년에 장암 수술을 받으셨다. 가르치는 사명감과 책임감이 남달라서 이때도 회복기간 약간을 빼곤 곧 강의를 강행하였다. 차에서 발을 내디딜 힘조차 없어 학생에게 안겨 내리셨으면서 교실 안에 들어서실 때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당당히 걸어서 들어오신 분이다. 강인한 의지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아무도 따를 수 없는 그분의 돋보임 중의 하나다.

그런 때까지도 제시간에 강의를 끝내지 않으셨던 분, 시간이 넘었다고 아무리 독촉을 해도 강의를 도중에서 접는 법이 없으셨던 그분은 진정으로 교육열로 넘쳤던 우리들의 스승이었다.

그 중에 그분에게 혼자만이 아파야 했던 참회가 항상 따랐다. 가끔 참회록을 쓰고 싶다는 말을 하셨을 때 그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참회할 일이 한 둘이겠는가.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을 뒤에 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교수님은 항상 그 참회를 지고 사셨다. 아버지날은 “나무 뒤에 숨어 하늘 구멍을 뚫고 우는 날이다”라고 한 시는 언제까지고 묻어버리지 못하고 사신 아픔이 보여 가슴이 메었다.

교수님께서서는 시인으로서의 긍지가 하늘을 찔렀다. 시인은 “詩” 글자 그대로 왼쪽에 말씀 글자와 오른쪽에 寺 절 사자가 있다. 즉 절에서 도를 닦는 사람이다. 수필가, 소설가, 화가, 사업가는 家지만 詩人만은 사람 인자가 붙는다. 사람이란 자를 붙여 존중을 받아 왔다면 긍지가 대단하셨다. 시인이라 말할 때 그분의 눈은 광채로 빛나 평생 시인임에 틀림없는 분이셨다. 미국문단에 시인이 많은 것도 그분의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 그분의 기억력은 - 상상을 넘는 기억을 가지신 분이다. 그 많은 사람의 이름과 있었던 일, 크고 작은 사건들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는지 입을 딱 벌리고 듣곤 했다.

박식함은 또, 대단한 노력가인 것을 알 수 있었다. 박식은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과거 현재에 이르는 문학 이론과 역사와 사조와 비교 등 다양한 강의를 펼치셨다. 나 같은 사람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넘긴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고 그분이 베푸는 지식을 얼마라도 터득했다면 아마 강의 한 귀통이쯤 말을 지식은 얻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그분이 우리를 가끔 감탄하게 만드는 일이 있었다. 남의 작품을 본인보다 더한 해석을 해 주시는 일이다. 꿈보다 해몽이라는 말이 있듯 그 해석이 작품보다 더 좋다. 어떤 때는 절을 하고 받고 싶도록 고마울 때가 있었다.

교수님께서서는 내가 낼 수필집에 글 한자 올려주지 않고 가버리셨다. 발버둥치고 싶다. 얼마나 잘 써주셨을까 하고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 그러다가 생각을 다시 하기로 했다. 조금이라도 그분에게 골치를 덜 아프게 해드리지 않았는가 하고. 부탁을 드렸더라면 좋게 써 주시려고 얼마나 골머리를 앓으며 고심하셨겠는가. 그런 수고를 하시게 하지 않고 보내드렸다. 그러면 된 거다. 눈물이 자꾸 흐른다. 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고 있다.

원로시인 고원(高遠) 교수님을 찾아서

대담: 장태숙

한국문단의 원로시인이자 미주문단의 거성이신 고원 교수님 자택을 방문하기로 한 날은 드물게 불볕더위가 최고조로 오른 날이었다.

로스엔젤레스 근처 포터 랜치(POTER RANCH)는 밸리라서 그런지 수은주가 화씨 110도(섭씨 약 40도)를 오르내려 체감온도가 다른 곳보다 더 높은 것 같았다. 자동차의 에어컨마저 속수무책 힘들어 보였다. 더위 탓이었을까? 잘 알고 있는 길을 몇 번 헤매다, 앞뜰 정원을 예쁘게 가꾸놓은 그림 같은 교수님 댁을 발견하자 무척 반가웠다.

벨을 누르자 현관문을 연 교수님 부부는 그 잠시 동안에도 땀을 흘리며 서 있는 나를 보고 깜짝 놀라셨다. 실내는 에어컨으로 인해 시원했지만 고원 교수님의 부인이신 이영아(전 중앙일보 미주본사 논설위



1990년 『문학공간』 수필부문 신인상, 1992년 『창조문학』 시 부문 신인상, 2001년 창조문학가상. 저서로는 시집 『내 영혼 머무는 곳에』, 『그 곳에 내가 걸려있다』, 『고요 속의 파문』이 있다.
<http://myhome.mijumunhak.com/jangtaesook>

원) 선생님께서는 내가 자리에 앉자마자 얼른 선풍기를 곁에 바짝 붙여 틀어 주셨다.

서늘한 미풍 속에서 사모님께서 내놓으신 수박과 시원한 매실차를 한 모금 마시니 땀방울과 밖의 뜨거운 기온이 가뭇없이 사라졌다.

내 집과 같은 동네 라크라센타에서 사시던 교수님은 몇 년 전에 이곳으로 이사하셨다. 잠시 실내를 둘러보니 세련되고 깔끔하신 사모님의 손길이 곳곳에서 배어난다.

약간 편찮으시다는 교수님은 여전히 소년같이 해맑은 모습이셨으며, 곁에서 정성스레 교수님을 챙기시는 아름다운 사모님을 보며 ‘두 분의 금실이 참으로 좋으시구나.’ 하는 행복한 느낌을 받았다. 한결 편안해진 마음으로 준비해간 인터뷰 원고를 펼치고 정담을 나누었다.

—편찮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요즘 근황은 어떠신지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더위가 다 가면 더 나을 것 같네요.

—작년에 60년 문학인생을 총 정리한 <고원 문학전집>이 출판되고, 로스엔젤레스에서 성대한 출판기념회도 열렸는데요. 그 소감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집 5권이 나오는 데는 간행위원 열 분의 힘이 절대적이었지요. 사제관계가 있는 분과 없는 분이 각각 5명씩이었습니다. 나로서는 일생 최대의 출판을 참 열심히 도와주신 간행위원 여러분들에게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전집이 나와서 물론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끄러움이 자꾸 울어납니다. 그 전집에 안 들어간 글이 많고 그 후에 쓴 것도 계속 나오고 있어서 전집 제 6권을 추가할 날이 오면 좋겠어요. 영문 저작도 상당한 분량인데 그건 별도로 정리돼야겠지요.

- 교수님의 작품을 보면 전통서정시, 주지시, 현실참여시, 저항시, 상징시, 초현실주의시, 신양시 등등 다양한 시풍의 흐름을 볼 수 있는데 혹시 어떤 동기가 있으신지요?

작품 흐름을 잘 지적하셨군요. 여러가지 다른 경향이 잡다하게 섞여 있다는 인상을 주지요. 시대와 사회의 변천, 영국과 미국 대학에서 공부한 영향, 나 자신의 문학 취향의 변화, 그리고 인생관, 세계관과 종교관의 파도 같은 게 내 문학에 다각도로 작용했다고 생각해요. 그게 좋다거나 나쁘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양한 영양 섭취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영양소도 자꾸 변하지요. 일반적인 면에서 보자면 문학인은 꾸준히 변화한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철로(鐵路)불길을 채색한 저녁 하늘의 건강이 무르녹은 산으로부터
안길 듯 두 손

들고 다가오는 것은 누가 부르는 들뜬 마음이나.

두근두근 굴리는 울림이며 숨찬 기적 소리는 무엇에 쫓기는바쁜 걸음이나.

불러서 가는 길이

쫓겨서 가는 길이

아하 호탕한 바다의, 미친 바다의, 아니 오싹 저승 같은 허허벌판의,
그것은 또 아직은 몰라도 몰라서 좋을 타관이었다.

그러나 어딘지 참 어딘지 있기는 할 듯한 먼 먼 외로이 즐거운 보금
자리였다. 약하게 약하게만 살아 보자는, 별 헤는 마음의 고향이었다.

술한 신호와 경례 사이를 빠져가며, 불려서 가는 길에 쫓겨서 가는
길에, 지도를 업신여기고 달리는 철로.

(1952)

—특별히 좋아하시는 시인이나 작가가 있으신지요? 혹시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한국 시인으로서의 청마 선생과 조지훈 선생을 좋아했습니다. 서양의 시인, 작가들 중에 내가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대체로 상징시인들 작품을 애독하고 소설에서는 실존주의 작가들을 거의 다 좋아합니다. 내 비교문학 학위에서는 다다(Dada)와 초현실주의가 중심이었습니니다. 어느 특정인의 영향을 받았다는 생각은 없고 20세기 서구의 문예사조와 동양사상, 특히 도학사상과 선의 원리 등이 접목된 세계에 내 문학의 뿌리가 박혀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교수님의 문학 인생이 우리 민족의 수난과 아픔을 같이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내 연배 사람들은 우리 민족의 숨 가쁜 격동기를 계속 살아왔지요. 그 고난의 삶 속에는 사회 비판 정신과 저항의식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런 격동의 역사는 정치현실과 연결되지요. 나는 그 속에서 소위 “사회 의식” 문학에 심취한 시절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로서는 그런 괴로움을 거치면서 새로운 경지를 찾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지금도 한국의 정치현실을 떠나서 우리 민족 조상이 담아놓은 ‘한’의 사상이 구현되기를 염원합니다. 크고 합치고 둥근, 저 우주적인 진리와 이상이 우리 민족의 얼이잖아요?

겨자씨의 눈물

돌멩이에 꽃이 피고
큰 산이 꿈틀거리게
세 번 흘리신 눈물로 오셔서
겨자씨의 눈물을 만나주십시오. 6만분의 1초 차이에
차바퀴가 씨를 차고 갑니다.
겨자에게 눈물이 말라갑니다.
눈물이 모자라서 큰일인가 봅니다.
골통을 빠개는 몽둥이 곁에
어서 눈물로 와주십시오.
젓통을 도리고 저미는 칼날 끝에
눈물 한 방울 뿌려주십시오.
왕의 머리에 부은 기름으로
책무기들을 녹이시고
겨자의 원자가 더 울게 해주십시오.
눈물과 눈물이 부딪쳐서 출렁거리는
바다 위로 걸어오실 때도
겨자씨의 눈물이 새롭게만 해주십시오.

(1984)

—해외, 특히 미주에서 ‘글마루’ 문학원을 통해 후학을 많이 배출하시고, 『문학세계』도 발행하고 계시는데 어떤 목적과 의미를 두고 계시는지요?

글마루 전신의 발족이 1985년이었고 『문학세계』 창간은 1988년이

었습니다. 글마루 외에도 우리 부부가 나가는 교회 안에 글로벌 성인 대학을 시작해서 내가 문예창작과를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 전부가 우리 재미 동포를 상대로 한 거지요. 나는 아이오와 대학 대학원에서 문예창작을 전공하는 동안에 창작 훈련에 대한 접근이 달라졌습니다. 재래식으로 자기 재능과 독자적인 연마만 갖고 창작을 하면 한계에 부딪친다는 깨달음이지요. 다른 예술 분야와 마찬가지로 철저한 전문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족이 뉴욕에 살고 있을 때 그런 창작훈련에 대한 요청이 있었지만 응하지 않았고, 1984년에 로스앤젤레스로 이사 오자마자 이미 중견급에 있는 문인 그룹의 지도에 대한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이듬해에 글마루 전신이 시작됐지요.

한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에서 글을 쓰고 싶어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중대한 사실 앞에서 나는 사명감을 갖게 됐고, 조금 전에 말한 전문적 훈련을 통해 소위 ‘이민문학’의 꽃이 피게 힘을 기울이자는 의욕이 굳어졌습니다. 과연 성과가 커가고 있어서 보람을 느낍니다. 나는 특히 본국 문단 지향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만 나올 수 있는 ‘큰 문학’, ‘열린 문학’을 여기서 창조하자는 목표와 의미를 강조합니다. 나는 그것을 ‘삼차원의 문학’이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그게 한국문학의 영역을 넓히는 동시에 미국 문학의 일부로서의 ‘민족문학’ 즉 코리안 아메리칸 문학의 향상에도 이바지하리라고 믿습니다. 후자에는 영어창작이 포함되지요.

물방울

먼 길 가다 가다

물을 비우고
세상 비우고
울어 울어 눈물
가득해지면다시 비우고
○ ○
○ ○
○ ○
방울에서 이웅 받침 리을 받침
홀홀 다 떼내 버리면
방울은 뚝뚝 떨어지는
바위로구나.그러면물방울은 바위가 돼서
밀물에도 사는구나.

(1990)

거울 뒷면의 얘기

네모난 벽이
여섯 개나 에워싼 곳에서
그는 제 자신을 보고 있다.
혼자가 아니니
서로 얘기를 한다.
그런데 저쪽 말을 서로 모른다.
방 안에 갇혀서 돌아다니는
생각의 그림자.
어느 한 사람이

벽에 걸린 거울 뒤로
돌아서 들어간다.
'절대'는 말이 없다.

(2006)

—현직교수로서 왕성한 창작과 번역을 겸하고 계시는데 그 열정에 대한 비결을 알고 싶습니다.

비결이라고요? 글썄요. 아마 의욕이겠지요. 나이 생각을 하지 않고 학생들과 어울려 지내는 게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다 한 사람의 뜻이지요. 하나 더 확실한 게 있어요. 시인은 영원히 젊다는 신념을 가지고 삽니다.

—오랜 외국생활에서 고국이 그리울 때는 언제인가요? 또 고향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 주세요.

고국, 모국은 우리 가슴 속의 내 나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심지어 자연에서 항상 그 나라를 만나요. 이미 세상을 떠난 친구들, 몇몇 살아 있는 옛 친구들 생각이 날 때 특히 더 그립지요.

고향. 사실은 고향이란 하나라야 하는데, 내게는 고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서로는 한국이 즉 고향입니다. 고향이라는 개념이나 감정이 달라졌나 봐요.

—평생을 문학과 함께 사셨습니다. 앞으로 하시고 싶은 일이나 소망은 무엇인가요?

고마운 질문이네요. 머지않아 라벤 대학(University of La Verne)을 완전히 은퇴하고 한인 문예창작 지도와 저작에 전념하려고 합니다.

아내가 주야로 가꾸고 있는 정원에 나가서 사색 시간을 보내는 중에 아직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떠오르면 뿌듯해지기도 합니다. 내 인생과 내 문학을 총정리 해보고 싶고요. 아들, 딸이 자신의 세계를 확립하는 모습도 보고 싶어요. 조국의 통일을 보고 싶은 욕심도 크고요. 창작, 저술 부문을 보자면 끝이 없어요. 도대체 끝이 없는 게 문학이겠지요?

오래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한다는 말이 되는군요. 하하하

—좋은 말씀에 감사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소망하시는 일을 모두 이루시기 바랍니다. 한국문단뿐 아니라 미주문단의 큰 어른이신 만큼 앞으로도 후배들을 위해 더욱 커다란 정신적인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부부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돌아오는 길은 열기가 훅 훅 느껴지는 뜨거운 기온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서늘했다.

고국을 떠나 어려운 이민생활 중에서 우리 글로 문학을 한다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다. 그러나 한평생을 빛나는 지성과 끊임없는 열정으로 문학을 지켜 오신 분이 우리 가까이에 계신다는 것은 여간 귀하고 보배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민문학의 한 획을 그으시고, 미주문인들의 정신적인 지도자인 고원 교수님께서 오래오래 건강하시기를 진심으로 빌어본다.

.

** 편집자 주 : 이 글은 창조문학 2007년 가을호에 게재된 것을 본호 故 고원 선생님의 특집에 전재함을 알린다.

고원(高遠) 詩人의 作品 鑑賞

조옥동

산을 오르다 보면 山勢에 따라 수목이 다른 모양으로 자라고 있다. 울창한 숲이 앞을 가로 막는 경우도 있지만 그 속엔 크고 작은 나무들이 함께 걸어가고 있는 모양도 있다. 마치 큰 거목이 어린 나무들을 거느리는 듯 보인다. 대부분 작은 산에는 유달리 큰 나무가 서 있어 홀로 다 기억하고 있는 바람과 구름, 별과 일월의 역사와 심지어 안개의 비밀스런 심술까지도 아래의 작은 나무들에게 얘기를 해 주고 있다.

미주의 한국 이민문학의 역사를 말할 때 우리는 고원(高遠)이란 큰 나무가 있어 다행이다. 그는 시작이요 터밭이며 경작자고 산 증인이다. 그를 빼 놓은 한국문학을 미주에선 논할 수 없고, 아니 있을 수



제1회 재외 동포문학상 입상. 『시를 사랑하는 사람들』 신인상, 『현대시조』 2005년 '좋은 작품상' 수상 한국문협,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 시집 『여름에 온 가을엽서』 『삶의 절정을 만지고 싶다』. 현재 UCLA 의과대학 생리학 연구실 Research Staff
<http://myhome.mijumunhak.com/jomahnoak>

없다는 말이 더 타당하다. 1966년 아이오와 주립대학 대학원에서 영문학 석사를, 1974년 뉴욕대학교에서 비교문학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여러 대학교에서 교수로 후학을 가르치고 캘리포니아 주의 라벤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학자며 시인이다.

문학의 장에 서면 감히 대 선배이며 원로인 고원 시인을 바라만 보아도 경외감을 갖게 된다. 더구나 그에 관한 또는 그의 작품을 이리저리 말하기는 매우 외람되고 분에 넘치는 일인 줄 알면서도 미주 한국문단의 원로 한 분, 아직도 그를 잘 알지 못하는 고국의 문인과 독자들에게 그의 존재를 잠시라도 알려드리고 싶은 조급함에 수백 편의 작품 중에서 특히 시조 몇 편을 들고 나왔다. 그 연유는 시인이 고국을 떠나 온 지 오래 되었고, 고국에서 청년기였던 1950년대 초에서 1960년대 초까지 네 권의 시집이 발행 되었을 때마다 그 당시 충격적일 만큼 그에게 관심을 표현하며 주목하였던 문단의 원로들과 동인들의 대부분이 이미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늦은 감이 있지만 고국문단이 해외 한국문단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젠 이민문학은 변두리 문학으로의 푸대접을 벗어나 해외 한국문학으로 연구 평가되기 시작함이 오래되지 않았다. 1985년 高銀 시인이 「모국어에 대한 회귀적인 사랑」이란 제호의 高遠론을 쓴 이후 최근까지 고원 시인에 관한 詩人론이 10편 가까이 쓰여졌다.

마무리

꽃 피면

모진 바람

큰 가지 잘리고

패일 뻥하다가는

뿌리 되레 깊어졌다

눈부신

단풍잎 단심

만리 퍼져

마무리

바위로 앉아

팔 다리 접어서

가슴에 묻었겠나

눈감고

입 다물고

다 맡긴 채 앉았구나

바람에 넉넉한 숨을

안 쉬는 척 살고 있다.

2003년 泰學社 간 우리시대. 현대시조100인선 『새벽별』에서

위의 두 작품을 통하여 시인의 모습을 철학을 곧 바로 읽을 수 있다. 모진 바람 불어와도 오히려 굳게 침잠하는 내면세계를 내 비치고 있다. 이는 연륜에서 오는 깨달음도 있겠으나 “지금은 어디 섰는가?” 하고 스스로에게 던져 온 자기 수련을 위한 최면의 결과다.

고원 시인의 연대는 큰 전쟁을 두 번이나 겪은 조국 한국의 피비린 내 나는 수난과 격동으로 점철된 역사의 중심에 서서 아픔과 비탄과 가난 속에 몸부림치던 세대이다. “서구 현대문학에 곧잘 등장하는 불안, 불신, 부조리, 소외, 권태, 쫓김, 심문, 벽, 단절 같은 주제, 소재, 모티프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생활일 수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 속에서 시를 두고 씨름해 왔다. 그런 편력, 그리고 상처가 새로 아리도록 아프게 되살아난다.”고 회고하는 그는 2005년 8월에 “문학생활 60년”을 기념하고 2006년에 『고원문학전집』 5권이 김호길 시인(세계한민족작가연합 이사장)과 김동찬 시인(현 미주한국문협 회장)과 몇 명의 후배로 구성된 간행위원회에 의해 출판사 “고요아침”에서 발간되었다.

구름

구름이 있나 없나
바람이나 알까 말까

없으면서 보이고
보이는데 자취 없이

나그네
지나간 자리
맑고 쉼은
그림자

귀뚜라미

너는 꼭
숨어서만
우는 정을 지냈더라

그런데도
작은 몸
터져라 기를 토해

눈물만
흘리는 사람
울려나는 메아리

시조의 멋이 울려 나는 수십 편의 絶唱들 중에서도 이 작품들은 “나는 오나가나 나그네다.”라고 “그래서 이 길손의 눈은 늘 젖어 있다.”는 시인의 고백이요, 우리들 이민자 누구나 공감하는 노래다. 고독이 핏줄 속에 아프게 흐르는 실향민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귀뚜라미도 흘러가는 구름도 도무지 무심치 않다.

1947년부터 고국과 영국 그리고 미주에서 현재까지 간단없이 이어온 그의 창작활동 범위는 시와 시조, 수상록과 기행문 그리고 문학 평론, 수필, 서평, 번역시, 영문시 등 문학 전반에 통달하고 있다. 그는 아직도 술한 고백이 남아 있다고, 꿈도 남아 있다고 갈파한다. 문학에의 정열이 오히려 더욱 날로 뜨거워 감은 이 땅에서 오랫동안 호흡을 한 뜨거운 캘리포니아 사막의 기온 때문이 아니고 평생을 그림자같이 때로는 오히려 더 풍성한 그림자로 고원 시인을 감싸주는 부

인 고영아(미주중앙일보 편집위원직에서 은퇴. 현재 고정 필진으로 있음) 선생의 내조와 외조의 힘이라고 알게 모르게 사랑을 하는 지극한 애처가다. 무엇보다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교회의 장로님이다. 몇 년 전 장암으로 고생을 할 때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화로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매우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이 시인의 주위엔 제자들이 늘 떠나지 않는가 보다.

느닷없이

느닷없이 올지 몰라도 꽃 한 포기 더 심자구
홀쩍 가고 말더라도 꽃 한 포기 더 심자구
갑자기 그 날이 올 때 꽃이 아직 안 피도

좁은 문으로

큰 길이 많지마는 좁은 길만 좋다더라
애타게 찾고 걷다 닫힌 문에 이른다네
이 문이 하도 좁아서 낮은 몸 다 비워야

떡 한 조각

떡 한 조각 받아 먹고 작은 술잔 비우고
썩은 살 썩은 피가 줄줄이 녹아라

온 몸이 지워져버려 자취 한 점 없거라

바람 얘기

그렇게 가는 건데 이대로 가는 건데
가면은 가는 대로 말 말고 가는 건데
그렇게 갈 길이 있어 그냥 가면 그만인 걸

위의 시조들은 지면관계로 원작과 달리 3행으로 압축했음

내일이 세상 끝날일 지라도 뉴턴의 사과나무는 심겨지고 심자고
말들 한다. 허나 그 마지막 날에 피지 못할 지라도 꽃 한 포기 심자는
이 시인의 마음을 누가 가졌을가. 성찬식을 할 때, 떡 한 조각도 작은
포도주 한 잔도 예사로 넘기지 않는 시인, 그는 편하고 넓은 길 대신
좁은 길을 택하고 좁은 문을 통과하려고 허약한 몸에 가진 것 비우고
비우며 날마다 낮아지고 있다. 이 원로시인의 세계는 거룩하게 성화
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미주 한국문학이 본격적으로 태동한 시기는 1980년대 초이다.
1970년대 중반부터 한국인의 가족이민이 시작하고 몇 년 후에 동부
뉴욕과 서부 LA에서 소수의 문인들이 문학단체를 만들고 앤솔러지
를 펴내며 동호인 활동을 하게 된다. 1988년에 “미주한국문인협회”
회장을 역임하고 그는 1986년 시창작교실(현재 글마루)을 개설하여
오늘까지 후진들을 가르치고, 1988년부터 『문학세계』를 발행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미주의 양 대 일간지인 중앙일보와 한국일
보에서 실시하는 문예작품 모집의 심사위원직을 해마다 맡아 수많은

신인들을 배출시키고 있다. 현재 미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문인의 대부분이 직간접으로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조금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특히 한국의 현대시와 시조를 영역하여 미국출판사가 출판하게 하는 일을 그는 떠나 온 조국에 대한 극히 작은 사랑의 표시이고 빗갸기라고 겸손하다. 개인적인 인연은 꼭 십 년 전 필자가 시인으로 거듭나게 된 1997년 미주 한국일보 신춘문에 작품모집에서 시작된다. 마중기 시인과 두 심시위원이 「그랜드 캐년에서」라는 내시를 입상작으로 선하여 1970년대 중반 이민으로 접었던 내 문학에의 꿈을 다시 펼치게 하는 동기부여의 행운을 얻게 되었다.

치자꽃 소원

치자꽃 핀 아침에
새 소리 흰 그림자

멀리 향을 맡자마자
칼라 꽃이 가슴을 연다.

이런 날
미국이 전쟁을
고만두면 좋겠다.

위의 시조는 아주 최근의 작품이다. 사실 근래의 작품에서는 고요와 平靜 속에 사색의 會悟와 悔悟가 깊은 信心을 투영한다. 그러나 그의 젊음은 「時間表 없는 停車場」(1952)에서부터 「북소리에 타는 별」(1979)까지 荊棘의 철로를 달리며 항변과 개혁을 소리쳤다. 2

차 대전과 한국전쟁 후의 사회적 혼란과 방랑의 旅路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신 지성인들을 향해 불신과 불안에 맞서 극복의 궤도를 찾으려 고뇌하였다. 그는 때로 격하고 날카롭고 분노하고 슬펐다. 이제 꽃과 새가 어우러진 정원에서 향기를 가꾸는 사랑하는 이와 함께 안락한 노후를 보내면서 세계의 평화를 염원한다. 세상에 전쟁이 없는 날은 없을까? 시인의 신작 두 편을 아래에 더 내려놓는다.

향기의 소리

술이 향을 쏟으면
향 소리가 들린다.

해와 달 농익어
별이 튀는 술 향 소리.

입 가득
솔잎을 물고
푸른 소리를 마신다.

수국 송어리

수북수북 인정 담아
맘이 트인 송어리.

속상하고 뉘우칠 일

뭐 그리 많으냐.

푸짐한

네 가슴 앞에

작은 손을 펴본다.

이 시인은 색과 향기가 소리로, 소리가 향이 되어 몸속으로 전이되며 삼라만상과 일체가 되는 경지에까지 이른다. 시와 시조를 기행문과 수상록을 그리고 평론을 얼마나 많이 기록했던가.

그 몸이 사색으로 채워지면 글로 비워내는 작업이 거둬들이는 일생을 살면서 그는 하나의 악기가 되었다. 색과 향기와 소리가 조금만 건드려도 공명하는 아름다운 악기이다. 눈과 마음을 귀를 하늘을 향해 열어놓고 영혼을 풍요케 했던 그 행복을 나누어 가질 작은 손을 펴고 있다.

** 필자 주 : 윗글은 『새시대 시조』 2007년 가을 호에 게재된 것을 본호 故 고원 선생님의 특집에 전재한다. 그리고 지난 해 여름, 고인으로로부터 부터 받은 근작 시조들을 중심으로 쓴 글임을 밝혀둔다.

「느닷없이」 떠나실 날을 예견하신 듯 미주문단에 무지개 곱게 펼쳐놓고 시인은 2008년 1월 20일 이른 아침, 나그네 길을 「마무리」하셨다. 홀연히 떠나신 고원 시인을 기리며 그의 소리를 다시 음미한다.

그렇게 가는 건데 이대로 가는 건데
가면은 가는 대로 말 말고 가는 건데
그렇게 갈 길이 있어 그냥 가면 그만인 걸

(고원 선생의 시조 '바람 얘기' 전문)